

천왕문의 등장: 사천왕상의 봉안위치와 역할

Appearance of Heavenly Kings Gate Building : the enshrined location and role of four heavenly king statues

저자 (Authors)	임영애 Lim, Young-ae
출처 (Source)	신라문화 52, 2018.8, 45-70(26 page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52 , 2018.8, 45-70(26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30675
APA Style	임영애 (2018). 천왕문의 등장: 사천왕상의 봉안위치와 역할. 신라문화, 52, 45-7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0 15:5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천왕문의 등장: 사천왕상의 봉안위치와 역할

임 영 애*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I. 고려 후기 天王門의 등장 :
수호 공간의 확대 |
| II. 통일기 신라 사천왕상 :
탑신 안에서 탑신 밖으로 | IV. 조선시대 천왕문의 정착 |
| | V. 맺음말 |

[국문초록] 한국 사천왕상은 시대마다 위치한 곳이 달랐다. 통일기 신라 초에는 '탑 안에 봉안된 사리기 바깥 면'에 위치하다가, 8세기 중엽 무렵부터 '탑의 초층 탑신 면석'으로 옮겨 갔다. 이후에는 사찰 입구에 天王門이 건립되고, 그 안에 봉안되면서 寺域을 지킨다. 고대 동아시아의 예로 비추어 보면 佛殿 내부에도 사천왕상을 봉안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쉽게도 남아있는 예는 없다. 고려시대에도 『金光明經』 도량이 40여 차례 이상 열렸고, 이때 사천왕상은 필수였기 때문에 불전 안에 사천왕상을 모셨을 것이다. 남아있는 예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천왕상은 점차 '안에서 밖으로' 자리를 옮기는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

탑과 佛殿에 위치해 있던 사천왕상은 13세기 후반 무렵 사찰 입구에 마련된 천왕문에 봉안되기 시작했고, 사천왕이 수호해야 할 공간은 사찰 전체로 확장된다. 문헌 기록으로는 '1337년 통도사 천왕문 건립'이 가장 이른 예이지만, 정황상 1270년 入元 求法僧이 갑자기 늘어나는 13세기 후반 즈음부터는 이미 중국 사찰의 천왕전이 고려 사찰 영역에 도입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대형 사천왕상과 천왕문의 예만을 두고 '천왕문이 조선시대 후기에 시작했고, 그 원인이 임진왜란 이후 碧巖 覺性(1575~1660)의 호국의 발원 때문'이라고 본 기왕의 견해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영문초록] Korea 'four heavenly king statues' were differently placed in each age. In the early unified Silla, it was located on the 'outer side of the enshrined sarira reliquary inside the pagoda', and from the middle of the 8th century, it moved to the ground floor stupa underpinning face stone of pagoda. After that, the 'four heavenly kings gate building' (天王門) was built at the temple entrance, and enshrined in it to protect the temple area (寺域). In the case of ancient East Asia, it is likely that the four heavenly king statues were enshrined in the Buddhist temple (佛殿),

*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

but unfortunately there are no examples left. In the Goryeo period, 'place of enlightenment(道場)' of "Jinguangmingjing (金光明經 Suvarṇa-prabhāsōttama-sūtra)" was held more than 40 times, and because the four heavenly king statues were primarily required at this time, the four heavenly king statues may have been received in the Buddhist temple. It is difficult to say with only the remaining examples, but the four heavenly king statues gradually show a distinct change in shifting 'inside out'.

The four heavenly king statues, located in the pagoda and Buddhist temple, began to be enshrined in the four heavenly statue gate building at the temple entrance in the late 13th century, and the space that four heavenly kings must defend expands throughout the whole temple. According to the documentary records, "the construction of the four heavenly kings gate building of Tongdosa temple(通度寺) in 1337" is the earliest example, but as a matter of fact, from the late 13th century when 'dharma-seeking monk' (求法僧) suddenly increased in 1270, the four heavenly statue hall of temples in China had already been introduced into the temple area in Goryeo. As a result, the four heavenly statue gate buildings were started in the late Joseon era with only the remaining large-scale four heavenly king statues and the four heavenly statue gate buildings as examples, and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examine more carefully the previous view that the cause is due to the patriotic appearance of Byeokam Gakseong (碧巖 覺性 1575-1660) after Imjin Japanese Invasion (1592-1598).

[주 제 어] 사천왕상(four heavenly king statues), 天王門(heavenly kings gate building), 『金光明經』(Jinguangmingjing Skt.Suvarṇa-prabhāsōttama-sūtra), 通度寺(Tongdosa temple), 求法僧(dharma-seeking monk), 碧巖 覺性(Byeokam Gakseong 1575-1660)

I . 머리말

한국 불교미술에서 사천왕상의 봉안 위치는 다양하다. 사리기 외함에도 있고, 불탑과 승탑에도, 그리고 사찰 입구의 천왕문에도 사천왕상이 있다. 남아있는 사천왕 가운데 가장 이른 예는 잘 알려진 것처럼 682년 감은사 동서 삼층석탑 사리기 외함의 사천왕상이다. 물론 그보다 3년 앞서 완성된 679년 사천왕사에도 사천왕상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짐작컨대 당시 사천왕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천왕상은 법당 내 혹은 목탑 내부 四天柱 각 면에 1구씩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¹⁾ 탑 안에 봉안

1) 필자는 사천왕사에서 '사천왕상'을 목탑의 기단에 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임영애, 「사천왕사지 塑造像의 존명」, 『미술사논단』 27, 2008, pp. 7-32). 사천왕사에서 '사천왕상'이 가장 중요한데, 목탑의 하단에 사천왕상을 봉안했을 리 없다고 생

되었던 '사리기 외함의 사천왕상'은 감은사 삼층석탑을 비롯한 나원리 오층석탑의 예가 대표적이며, 이들의 제작 시기는 대략 7세기 말~8세기 전반에 해당한다.

처음 탑 안에 봉안됐던 사천왕상은 8세기 중엽 탑신 표면으로 자리를 옮긴다. 탑신에 새겨진 사천왕상 부조 가운데 가장 이른 예는 8세기 중엽 무렵에 세워진 원원사지 삼층석탑인데, 초층 탑신 네 면에 각 1구씩 조각했다. 탑신의 사천왕상 부조는 이후 널리 유행하여 9세기가 되면 불탑뿐만 아니라 승탑에도 조각되는데, 유행은 고려 전기까지 지속된다.²⁾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 친숙한 모습은 사찰 입구의 천왕문 좌우에 각 2구씩 배치되어 있는 사천왕상이다.³⁾ 일주문을 지나 마주치게 되는 천왕문의 사천왕상은 통상 조선 후기에 조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남아있는 천왕문과 그 안에 봉안된 거대한 사천왕상이 조선 후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그 원인을 팔도도총섭을 지냈던 碧巖 覺性(1575~1660)의 공으로 돌리기도 한다. 벽암 각성이 임진왜란 후 사찰 복원사업을 주도하면서 그가 중창한 사찰, 이를테면 완주 송광사, 구례 화엄사, 하동 쌍계사, 보은 법주사 등에 '호국'을 위해 대규모 천왕문을 세웠다는 것이다.⁵⁾ 하지만 '천왕문' 혹은 '그 안에 봉안되어 있는 대형 사천왕상'은 임진왜란 이전에도 예가 있다. 1337년 통도사 천왕문을 건립했다는 문헌 기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했기 때문이다. 사천왕사의 사천왕상은 목탑 내부 四天主 各 면에 1구씩 두어 사방에 열린 문을 통해 상을 볼 수 있도록 고안했을 것이라 추정한다(임영애, 「사천왕상과 호국 신앙」, 『신라의 조각과 회화』 신라사대계 19, 경상북도, 2016, p. 52).

- 2) 석탑 부조상의 큰 흐름을 살펴본 논고로는 문명대, 「신라사천왕상의 연구 -한국탑부조상의 연구(2)-」, 『불교미술』 5, 동국대박물관, 1980(『통일신라불교조각사 연구(下)』, 예경, 2003, pp. 232-278 재수록); 장충식, 「통일신라석탑 부조상의 연구」(『고고미술』 154-155, 1982, pp. 96-116); 허형욱, 「통일신라 석탑 부조상의 종류와 구성」(『영원한 생명의 울림 - 통일신라 조각』, 국립중앙박물관, 2008, pp. 320-329), 윤여창, 「통일신라 탑부조 신장상 연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1, pp. 61-104가 있으며, 보다 구체적 연구는 강삼혜, 「나말여초 僧塔 塔身 神將像 연구」, 『미술사학연구』 252, 2006, pp. 81-116; 김지현, 「통일신라 佛塔의 四天王像과 그 의미」, 『文物研究』 17, 2010, pp. 83-112; 임영애, 「신라석탑 탑신 부조상의 추이-금강역사상에서 사천왕상으로-」, 『선사와 고대』 35, 2011b, pp. 225-248 등이 있다.
- 3) 일주문을 지나면 통상 천왕문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으로 해탈문(혹은 不二門)에 이른다. 물론 경우에 따라 일주문과 천왕문 사이에 금강문이 있기도 하다. 사찰 진입부에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 三門을 배치하는 법식이 17세기에 시작한 것으로 보는 견해는 이강근, 「完州 松廣寺의 建築과 17세기의 開創役」(『강좌미술사』 13, 1999, p. 109)이 있다.
- 4) 노명신, 「조선후기 사천왕상에 대한 고찰」, 『미술사학연구』 202, 1994, p. 105; 노명신, 「송광사 사천왕상에 대한 고찰」, 『강좌 미술사』 13, 1999, p. 95; 정은우, 「조선후기 대형 소조사천왕상의 구조와 제작기법 연구」, 『불교미술사학』 22, 2016, p. 153.
- 5) 대형 소조 사천왕상이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임란 당시 의병과 승병의 활약이 컸던 호남지방에서 17세기 전반부터 행해진 사찰 중건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 글의 각주 4 참조.

1515년에 제작한 높이 373센티미터의 보림사 사천왕상이 남아 있어 '천왕문의 대형 사천왕상'이 '벽암 각성'과 얼마만큼 긴밀도가 높은지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사천왕상의 봉안 위치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 통일기 신라 초에는 사리기 외함, 즉 탑 안에 위치하다가 8세기 중엽 무렵부터 초층 탑신으로 옮겨가고, 이후 천왕문에 봉안되는 큰 흐름을 보인다. 점차 '안에서 밖으로' 자리를 옮긴다. 물론 남아있는 예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변화의 흐름은 뚜렷하다. 이 글은 한국의 사천왕상이 어떤 이유로 탑신 안에서 탑신 밖으로, 그리고 사찰 입구의 천왕문으로 자리를 옮겨 조성되었는지, 위치의 변화에 따라 역할의 차이도 함께 드러나는지 알아보려 한 것이다.

II. 통일기 신라 사천왕상: 탑신 안에서 탑신 밖으로

한국 불교미술에서 사천왕상 연구는 679년 '사천왕사'와 682년 '감은사'로 시작한다.⁶⁾ 특히 사천왕사는 당군을 물리치기 위해 세운 '호국' 사찰이기 때문에 '사천왕과 호국' 관련 대표 사례로 늘 손꼽힌다. 하지만 이쉽게도 현재 사천왕사지의 사천왕상은 남아 있지 않다. 과거 사천왕상으로 알려져 있던 목탑 기단의 소조신장상을 더 이상 사천왕상이라고 보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⁷⁾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천왕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천왕상'을 목탑의 기단에 두었을 리 없고, 이들 소조신장상이 '4구가 한 세트'로 이뤄져 있지 않다는 것도 그 이유이다. 짐작컨대 사천왕사의 주인공인 '사천왕상'은 금당 혹은 목탑 내부에 봉안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는 사천왕사보다 3년 뒤 제작한 감은사 동서 삼층석탑 발견 사리기 외함의 사천왕상이 가장 완전한 이른 예에 해당한다(도1). 이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석장사지의 북방 다문천 단편이 있다(도2). 비록 상반신 일부만 겨우 남아있지만, 오른손으로 받쳐 든 보탑과 몸에 걸친 갑옷으로 북방 다문천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⁸⁾ 이 소조상은 뒷면이 편편하여 어딘가에 부착했던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석장사

6) 한국 사천왕상의 연구 성과는 임영애, 앞 글, 2008, pp. 33-35; 임영애, 「석굴암 사천왕상의 도상과 불교경전」, 『강좌미술사』 37, 2011a, pp. 44-45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7) 이 글의 각주 1 참조. '사천왕사지 신장상이 4개 세트가 아니고, 탑을 들고 있는 다문천왕이 없으며, 기단부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사천왕일 수 없다'는 필자의 주장에 대해 '형상적 근거들이 모두 '천왕'이라는 도상으로 귀결되는데 숫자, 위치, 조합의 문제만을 근거로 천왕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한재원, 「한국 고대 신중상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8, p. 81)고 보기도 한다. 간혹 사천왕 가운데 2구를 선별하여 두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3구를 한 세트로 한 사천왕상도 보탑(혹은 幢)을 든 상이 없는 사천왕상도 지금껏 보지 못했다.

8) 북방 다문천에 손에 얹고 있는 보탑에 대한 논의는 임영애, 「북방 多聞天과 그의 持物



도 1. 감은사 동삼층석탑 사리의외함, 682년, 국립중앙박물관 (©통도사정보박물관, 『불사리신앙과 그 장엄』 2000, p.20)



도 2. 석장사지 소조사천왕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來如哀反多羅』, 동국대학교 건학100주년기념 소조불 특별전, 2006, 도25)

전탑 내부의 기둥 네 면 가운데 한 면에 부착했을 가능성이 있다.⁹⁾ 8세기 전반의 나 원리 오층석탑 사리기에도 사천왕상을 조각했으며, 도상은 감은사 사천왕상과 일치한다(도3). 이 밖에 실제 사천왕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황복사 삼층석탑 발견 706년 금동 사리의외함 뚜껑에도 사천왕의 이름이 나온다. ‘또한 梵王, 帝釋, 사천왕은 위덕이 더욱 밝아지고 기력이 자재로 와져 천하가 태평하고…’¹⁰⁾ 사천왕사, 감은사 사천왕상의 예는 물론이고 황복사 사리기 뚜껑의 기록을 통해서도 적어도 통일기 신라 사천왕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호국’이었음은 분명하다.¹¹⁾

寶塔-원과 고려이전 양상-, 『미술사와 시각문화』 9, 서울대학교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10, pp. 86-115 참조.

9) 이 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김길웅, 「석장사지 출토 소조신장상의 고찰」, 『문화사학』 25, 2006, pp. 99-109; 이 다문천 편을 석장사지 전탑의 초층 탑신에 부착되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 김지현, 앞 글, p. 87.

10) 정병삼, 「황복사 금동사리합기」, 『(역주)한국고대금석문』, 한국고대사회연구소, 1992, pp. 346-350.

11) 물론 ‘護國’의 의미는 단순히 민족국가를 지킨다는 것이 아니며, 진리의 경계를 지키므로써 중생들이 살고 있는 국토를 평화롭게 보호하는 것이 본래 의미이다(김상현, 「고려시대의 호국불교 연구-金光明經 信仰을 中心으로」, 『단국대학교대학원 학술논총』 1, 1976, p. 203). 전통적으로 정치보다 종교의 우위를 존중해온 인도사회에서의 국가관에 초부터 국왕이 아니라 국토를 의미하였으며, 그것은 그대로 불교의 국가관이 되었다(金岡秀友 지음 김희오 옮김, 『불교의 국가관』, 總和閣, 1978, pp. 118-119; 中村元 지음 차차석 옮김, 『불교정치사회학』, 불교시대사, 1993, pp. 204-208).



도 3. 나원리 오층석탑 사리기, 8세기 전반, 국립중앙박물관 (©통도사정보박물관, 『불사리신앙과 그 장엄』 2000, p.24)



도 4. 분황사 금강역사상과 사자상 (©임영애)

이처럼 처음에는 탑신 내부에 안치되었던 사천왕상이 흥미롭게도 8세기 중~후반이 되면 점차 탑신 밖으로 몸을 드러낸다.¹²⁾ 이는 '사리'와 '사리를 위한 탑'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사천왕상의 공간 영역이 보다 확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래 탑신 문비 좌우에 새겨진 것은 금강역사상이었다. 잘 알려진 분황사 모전석탑이 가장 이른 예이다(도4).¹³⁾ 금강역사상이 있던 자리에 사천왕상을 새기게 된 것은 『금광명경』의 유행과 관련있다.¹⁴⁾

탑에 사천왕상이 부조된 경우는 현재 대략 20여점이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이른 예는 8세기 중엽 원원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사천왕상이다(도5, 5-1). 잘 알려진 대로 호국사찰인 원원사는 고대 경주의 주요 교통로 상에 위치해 있어 그 의미는 특별하다.¹⁵⁾ 탑신 밖으로 몸을 드러낸 사천왕상의 가장 이른 예가 경주의 길목을 지키는 원원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호국의 역할로서 사천왕상 의미는 더욱 확고해 졌다고 할 수 있다.¹⁶⁾ 불탑 탑신에 자리 잡은 사천왕상은 9세기 중엽 이후에는 승탑이나 석등에

12) 필자는 이러한 변화는 무덤 안에 봉안되었던 십이지상이 통일기 신라가 되면 무덤 밖으로 나와 무덤 호석에 부조로 새겨진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13) 임영애, 앞 글, 2011b, pp. 240-243; 통일기 신라 불탑 탑신의 사천왕상을 공간배치에 따라 분류해서 살펴 본 글은 김지현, 앞 글, pp. 83-112 참조.
 14) 이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Lim Young-ae, "Images of the Four Heavenly Kings in Unified Silla as the Symbol of National Defense", Buddhist Studies Review 32-2, Journal of the UK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2015, pp. 271-293.
 15) 원원사는 安惠, 朗融 등과 金庾信, 金義元, 金述宗 등 당시 주요한 인물들이 뜻을 모아 세운 호국사찰로 알려져 있다. T49n2039.1011b08 『三國遺事』 卷5 明朗神印.



도 5. 원원사지 삼층석탑 (©임영애)



도 5-1. 도5의 1층 탑신 사천왕상 (©임영애)



도 6.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창성탑, 884년경, 높이 3.7m, 보물 제157호 (©임영애)



도 6-1. 도6의 탑신 부분 (©임영애)

16) 임영애, 앞 글, 2016, pp. 47-55; Lim Young-ae, Ibid., 2015, pp. 271-293.



도 7. 운문사 작압전 사천왕상 (©임영애)

도 조각되며(도6), 운문사 작압전의 사천왕상도 대표 예 가운데 하나이다(도7). 이처럼 사천왕상은 탑신을 비롯한 승탑, 석등 등 다양한 장소에 새겨지는데, 이처럼 불탑, 승탑 등의 탑신에 사천왕상을 두는 예는 고려 전기까지 지속적으로 유행한다.¹⁷⁾

그렇다면 이 시기 사찰의 '문'에는 어떤 존상이 봉안되어 있었을까? 단순히 '문'만 두었을 수도 있고, 문 안에 상을 두었을 수도 있다. 문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예는 황룡사 '中門'이다. 황룡사 중문의 조성 시기는 대략 8세기 무렵으로 추정하며, 남아있는 대석의 숫자로 미루어 한 쌍의 금강역사상을 봉안했을 것으로 추정한다.¹⁸⁾ 같은 시기 일본 중문에도 금강역사상이 배치된다. 호류지 중문의 금강역사가 가장 잘 남아있는데, 747년 기록인 『資財帳』에는 711년에 완성했다고 적고 있다.¹⁹⁾ 이 보다 앞서 중국 사찰 문에도 금강역사상이 사자와 함께 배치되었다. 『洛陽伽藍記』의 '(516년에 중건된) 永寧寺의 사방에 門이 있는데, 南門에 四力士와 四獅子가 봉안되어 있었다는

17) 통일기 신라 승탑의 신장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유용하다. 강삼혜, 앞 글, pp. 81-116.

18) 중문지 좌우에 놓인 대석의 크기는 가로세로 200×130cm, 높이가 82cm로서 큰 편이며, 윗면에는 한 변이 약 18cm, 깊이 26cm 되는 구멍이 두 개씩 뚫려있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황룡사』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 1984, pp. 93-95.

19) 藤田經世, 「法隆寺本古今目錄抄」, 『校刊美術史料』 寺院篇 中卷, 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1976, p. 39

기록을 통해서도 고대 동아시아 사찰의 문에는 기본적으로 금강역사상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²⁰⁾

한편,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전반까지 크게 유행했던 『금광명경』 신앙은 잠시 주춤한다. 753년, 경덕왕이 태현을 불러 『금광명경』을 講하여 비를 내리게 하려 했으나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고, 이에 다음 해 갑오년(754) 여름에 왕이 다시 法海 스님을 황룡사에 불러 『화엄경』을 강설하게 하였다는 내용을 통해서이다.²¹⁾ 이 기록을 두고 경덕왕대 중엽에 『금광명경』으로 대표되는 불교가 『화엄경』으로 대표되는 불교로 교체되었음을 알려주는 근거로 삼는다. 8세기 중엽 화엄종파의 등장으로 『금광명경』의 유행이 잠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고려가 되면 내전에서 『금광명경』 도량을 40회 이상 열만큼 오히려 더 성행하였다.²²⁾

Ⅲ. 고려 후기 천왕문의 등장: 수호 공간의 확대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사찰의 ‘문’에 사천왕상을 봉안하기 시작했을까? 다시 말해 탑신에 부조로 새겨져 사리를 수호하던 사천왕상이 언제부터 사찰 입구의 ‘문’에서 사역 전체를 수호하게 되었을까? 법당 안에, 혹은 탑의 안팎에 봉안하던 사천왕상을 사찰 입구의 독립공간에 세우게 된 것은 공간 개념으로 보나 상의 크기로 보나 그 비중은 보다 커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통상 사찰 입구에 천왕문이 들어선 시기를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후 사찰을 재건하는 17세기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것으로 판단했다.²³⁾ 남아있는 천왕문이 조선 후기 이후의 건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 후기보다 훨씬 앞서 고려 말에 통도사에 천왕문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²⁴⁾ 1337년 고려 忠肅王(1332-1339)때 취암대사가 통도

20) T2092 1:999c 『洛陽伽藍記』, T2034, 9:0082b, 『歷代三寶紀』; 『낙양가람기』의 四力士와 四獅子가 문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기록을 두고 ‘四力士’를 사천왕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으나(심효섭, 「한국 고대 불교사원내 사천왕문의 형성考」, 『역사와 교육-蓮史洪潤植博士停年紀念特輯號-』 9, 2000, pp. 83-84), 4구의 금강역사와 사자상으로 보는 것이 옳다. 6세기 무렵 금강역사는 늘 사자상을 동반하고 석굴 입구에 서서 수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사천왕상이 사자상을 동반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21) T49n239.1009c25 『三國遺事』 義解第五 賢瑜伽海華嚴.

22) 김상현, 앞 글, pp. 209-210.

23) 천왕문을 17세기 재건 사찰의 전란 이후 호국 신앙 분위기와 직결되는 현상으로 파악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류성룡, 「17세기 사천왕상 天王門의 건축형식 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1-5, 2012, pp. 69-82; 정은우, 앞 글, p. 151; 이강근, 앞 글, 1999, pp. 109-110; 이대암, 「조선시대 라마계 천왕문의 수용 및 전개에 대하여」, 『건축역사연구』 16-6, 2007, p. 47; 노명신, 앞 글, 1999, pp.98-99; 노명신, 앞 글, 1994, pp. 105,115-116.

24) 『通度寺略誌』 통도사, 1969, p. 11; 『佛宗刹略史』 天王門 創主翠岩朗聰(韓國學文獻研究

사에 天王門을 처음 세웠다는 것이다. 물론 통도사 천왕문은 이 후 조선시대에 여러 차례 수리를 거쳤고, 지금의 천왕문은 19세기에 중건한 것이다(도8). 천왕문 안에 봉안된 사천왕상 역시 숙종 44년, 즉 1718년에 조선 후기 대표적 조각승인 進悅의 주도로 20명의 화원이 참여해 조성한 것이다.²⁵⁾



도 8. 통도사 천왕문 (©임영애)

필자는 사찰 입구의 천왕문은 이미 13세기 후반부터 건립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²⁶⁾ 물론 이러한 판단은 13세기 후반부터 대략 100년간 入元한 고려 승려의 숫자가 증폭했다는 점을 비롯해 1337년 통도사 천왕문 기록, 『고려사』, 1123년 『宣和奉使高麗圖經』 등의 문헌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이쉽게도 실물자료는 남아있는 것이 없지만, 고려시대에도 사천왕은 중요한 존재였다. 936년 개태사, 사천왕사, 광흥사 등을 창건했고,²⁷⁾ 998년 겨울 10월에는 성종의 병이 위독해지자 內天王寺로 옮겼다.²⁸⁾ 사천왕사를 고려 개국과 거의 동시에 창건했고, 내천왕사에는 병이 위중해진 성

所 編, 『通度寺誌』 韓國寺志叢書 제5집, 亞細亞文化社, 1979, p. 188).

25) 1718년 “康熙五十七年戊戌……良工嘉善進悅靈熙戒敏一性印湛處林初瓊清徽處玄守暎玉聰太澄廣眼太元天察雲益道安一湖孝善就尙…….”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남도 Ⅲ』 자료집, 2010, p. 35; 범어사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 중수도금기」에 ‘통도사 사천왕상을 조성한 가선 진열은 부처를 만드는 재주가 특별하다고 기록하고 있어 통도사 사천왕상의 조각승이 진열임을 알 수 있다. 진열은 통도사 사천왕상을 조성할 때 중2품에 해당하는 ‘嘉善’의 품계를 받았다. 현재 통도사 사천왕상은 경남 유형문화재 제530호로 지정되어 있다.

26) 8세기 후반-9세기 전반에는 사천왕문이 이미 가람 내에 수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연구 성과도 있다. 심효섭, 앞 글, pp. 73-100.

27) 『고려사』 세가 제2 태조 병신 19년(936) 是歲 創廣興現聖彌勒內天王等寺又創開泰寺於連山. 이 해에 廣興寺, 現聖寺, 彌勒寺, 四天王寺 등을 창건하고 또 開泰寺를 連山에 세웠다.

28) 『고려사』 세가 제3 성종 정유 16년(997) ‘겨울 10월 무오일에 왕의 병이 위독해졌으

중을 그곳으로 옮길 만큼 비중있는 사찰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천왕사에 1074년 문두루 도량을 설치하고 27일간에 걸쳐 蕃兵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하기도 했다.²⁹⁾

고려에서 『금광명경』을 배경으로 한 도량은 38회 가량 있었다.³⁰⁾ 이 가운데 사천왕도량은 1108년, 1217년 2회 설치되었다.³¹⁾ 특히 사천왕도량은 『금광명경』 사천왕품의 주인공인 사천왕을 대상으로 국가수호를 기원하는 의식으로, 외침을 물리치기 위한 직접적인 도량이다. 그 가운데서도 1108년 비사문사에 개설한 사천왕 도량은 여진을 물리치려는 목적이 있었다.³²⁾ 1270년에는 內殿에서 『금광명경』 강회가 개설되었으며, 그 疏文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³³⁾

‘엿드려 원하옵건대 六部神將은 나라의 衰亡과 危難을 방어하고, 四大天王은 福地를 붙잡아 주어서 譴罪를 천체의 현상에서 모두 거두고 變하여 즐겁고 경사스러운 상서를 이루게 하소서’

위와 같은 일련의 기록은 통일기 신라와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에도 ‘사천왕상’이 호국을 위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원(1271-1367)의 부마국이 되어 간섭을 받던 충렬왕(1236-1308 재위 1274-1308)으로부터 충선왕(1275-1325 재위 1308-1313), 그리고 원이 멸망하는 1367년까지 93년간, 각종 불사가 다른 때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금광명경』 도량은 1366년(공민왕 15)까지 꾸준히 열렸다. 그리고 그 『금광명경』 도량에는 사천왕상을 모셨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광명경』 도량에는 반드시 석가상을 안치하고 그 앞에 금광명경을 두어야 한다 … 그 오른쪽에는 사천왕을 모셔야 한다.’³⁴⁾

로 開寧君 誦을 불러 친히 맹세하는 말을 내리고 왕위를 전한 후에 內天王寺로 옮겼다.’

29) 『고려사』 세가 제9 문종 3 갑인 28년(1074) 庚子 設文豆婁道場於東京四天王寺二十七日以禳蕃兵.

30) 『고려사』에 29회, 『동문선』에 9회가 기록되어 있다;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김상현, 앞 글, pp. 209-210 참조.

31) 『고려사』 세가 제12 예종 1, 예종 무자 3년(1108) ...天王道場於毗沙門寺以禳邊寇 병자 일에 동계에 사신을 보내 鎮靜寺에는 文豆婁 도량을 베풀고 毗沙門寺에는 四天王 도량을 베풀어 변방의 적이 물러가기를 빌었다; 『고려사』 세가 제22 고종 1, 고종 정축 4년(1217) 庚申 親設四天王道場于宣慶殿 경신일에 선경전에서 사천왕 도량을 베풀었다.

32) 위 각주 참조.

33) 金坵撰「內殿行金經說經疏」, 『東文選』 110.

34) T46n1945.0959a06 『金光明懺法補助儀』.

라고 적고 있는 것처럼 『금광명경』 도량에서 사천왕상은 필수였다.

이처럼 고려시대 사천왕상 역시 통일기 신라와 마찬가지로 법당 내부에 혹은 탑신에 부조로 조각되었다. 실제로 『고려사』의 1081년 기록은 법당 내부에 봉안되어 있던 사천왕상에 대해 분명히 알려준다. '1081년 영화사 불전의 천왕소상이 벼락으로 소실되었다'는 내용이다.³⁵⁾ 아울러 부석사 조사당의 사천왕상 역시 불전에 봉안되었던 사천왕상의 대표 예로 꼽을 수 있다. 남아있는 예가 영성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13세기 후반 이전까지 사천왕상은 법당 내에 봉안했을 것이다.

이처럼 법당 내 혹은 탑 부조로 조성되었던 사천왕상은 고려 후기가 되면 사찰 입구의 천왕문에 봉안되기 시작하면서 사천왕의 수호 공간이 사찰 전체로 보다 확장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고려와 원 사이의 화친과 관련있다고 생각한다. 화친이 이루어지던 1259년 이후 원과 고려 사이의 잠치[驛 혹은 站] 설치가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이후 원의 대도, 즉 북경과 각 지방 요충지 사이의 신속한 교통, 통신체계가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시기 고려와 원 사이에 국경이 없다고 여길 만큼 양국의 관계는 특별했다. 특히 원의 대 고려 항쟁이 종결되는 시점인 1270년 이후 구법승의 행렬이 활성화되었는데, 필자는 이 시기 중국 사찰의 천왕전, 즉 천왕문이 고려 사찰 영역에 도입되었을 것으로 본다.³⁶⁾

당시 入元승려 가운데는 원에서 사찰을 건립, 중수한 승려도 있고, 국내 사찰의 재건과 증창을 목적으로 원으로 간 승려도 있다.³⁷⁾ 1343년 금강산 장안사의 宏奩은 장안사 중수를 위해 원의 대도에서 시주자를 찾았고, 소식을 접한 기황후가 흔쾌히 불사에 참여했다고 전한다.³⁸⁾ 장안사가 기황후의 지원을 받은 만큼 당시 장안사 중수에 원 사찰의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4세기 중엽 장안사 중수 당시 장안사에 천왕문이 세워졌을 가능성이 높다. 흥미롭게도 1609년 장안사를 찾았던 조선의 문인 曹友仁(1561-1625)은 '장안사 천왕문 사천왕상'에 관한 시를 남겼다. 물론 그가 본 장안사 천왕문의 사천왕상이 14세기 중엽에 조성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노래한 사천왕상은 우리에게 친숙한 사천왕상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조우인 시의 전

35) 『고려사』 세가 제9 문종 신유 35년(1081) '戊辰 雷震寧州靈化寺佛殿天王塑像'; 이 문장을 '靈化寺의 佛殿과 天王像에 벼락이 쳤다'고 해석하고, 이 시기 이미 천왕문이 존재했다고 보기도 한다(심효섭, 앞 글, pp. 92-93, 98).

36) 1274년부터 원이 명에게 멸망한 1367년까지 93년간 52건 350명 이상의 승려가 입중국 하였을 만큼 그 숫자는 많았다. 고려 입원승의 행적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김병곤, 「元の 宗教觀과 高麗 入元僧의 行蹟」, 『불교연구』 27, 2007, pp. 236-240; 당시 고려와 원의 교통로는 다음의 글을 참조. 정요근, 「고려 역로망 운영에 대한 元의 개입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 64, 2007, p. 167; 김철웅, 「高麗와 중국 元-明 교류의 통로」, 『東洋學』 53, 2013, pp. 65-82.

37) 이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김병곤, 앞 글, pp. 245-251 참조.

38) 李穀, 「金剛山長安寺重興碑」, 『東文選』 118.

문은 다음 장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중국 '천왕전'과 한국 '천왕문'은 역할이 같다. 통상 중국은 사찰 입구 산문 바로 안쪽에 천왕전을 두어 천왕문을 대신하기 때문이다.³⁹⁾ 비록 17세기의 예이기는 하지만, 완주 송광사 천왕문은 사찰로 들어갈 때는 천왕문의 현판을, 사찰에서 나올 때는 천왕전의 현판을 걸고 있어 '천왕문'과 '천왕전'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전각을 지칭한다. 중국은 이미 9세기 무렵이면 사천왕상을 따로 봉안한 천왕각을 경내에 세웠다는 기록이 있지만,⁴⁰⁾ 사찰 입구에서 산문의 역할을 하는 천왕전은 11-12세기는 되어야 보인다. 남아있는 비교적 오래된 천왕전은 절강성 영파 保國寺 천왕전은 1013년 건립되었으며,⁴¹⁾ 산서성 대동 善化寺의 천왕전으로 1132년 혹은 1122-1143에 건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²⁾



도 9. 북경 거용관 운대 (©村田治郎編, 『居庸關』 2, 京都: 京都大學工學部, 1957, 圖3)



도 10. 북경 거용관 운대 내부 사천왕상 (©『居庸關』 2, 圖48)

이처럼 중국에서 천왕문의 역할을 하는 천왕전은 이미 11세기 이후 사역에 반드시 등장하며, 거용관 운대 過街塔 입구의 사천왕상이 그 대표 예이다. 거용관 운대는 元

39) (北京) 弘仁寺 前立三牌樓 扁皆不記 入門有天王殿 殿後有烏銅大爐(『燕輶直指』 卷之四, 燕行錄選集). 『연원직지』는 조선 후기 문인인 金景善(1788-1853)이 1832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청나라 북경에 다녀온 후 남긴 사행기록이다. 비록 후대의 기록이지만 천왕전이 사찰 입구에 건립되었음을 알려준다.

40) T51n2093 唐 段成式撰 『寺塔記』 1卷 '天王閣 長慶中(821-824)造 本在春明門內 與南內連牆 其形大爲天下之最 太和二年勅移就此寺 折時腹中 得布五百端漆數十笥 今部落鬼神形像墮壞 唯天王不損'.

41) 郭黛姪 主編, 『中國古代建築史』 3, 宋, 遼, 金, 西夏 建築, 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3, p. 296.

42) 關野貞, 『支那の建築と藝術』, 東京: 岩波書店, 1938, pp. 293-312; 선화사 천왕전은 현재 정면 5칸(대략 29미터), 측면 2칸(대략 11미터)인데, 전각 앞의 비문에 의하면 1581년 지금의 크기로 확장했다고 전한다(村田治郎, 『中國建築史叢考』, 中央公論美術出版社, 1998, p. 54).

의 順帝(1320-1370 재위 1333-1370)가 1342-1345년에 건립한 탑의 기단 부분이다(도9). 거용관 운대는 북경에서 上都인 開平部로 이동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다. 바로 이곳의 拱門에 사천왕상을 새겨두었다는 것은 시기 그만큼 사천왕상의 비중이 컸음을 반증한다(도10).

거용관 운대와 관련하여 고려 후기 대표적인 사대부 문인인 李穀(1298-1351)이 남긴 기록 가운데 흥미로운 시가 있다. 1345년 고려 충목왕 원년, 그의 나이 48세가 되던 해에 元 順帝(1333-1367)의 上都 幸行에 함께한 후 남긴 『灤京紀行』 가운데 '居庸關 雲臺'라는 제목의 시다.

연경을 지키는 천험의 요새 옛 관문 天限燕雲有古關
 두 개의 산 사이에 높고 험한 오솔길 崎嶇細路兩山間
 태평한 지금의 길은 수레 두 채가 나란히 太平此日車方軌
 임금님 수레가 해마다 이곳을 왕래한다오 黃屋年年此往還⁴³⁾

36세부터 본격적인 원도 생활을 했던 이곡은 원을 자주 왕래했고, 장기 체류하기도 했다.⁴⁴⁾ 비록 14세기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274년부터 1367년까지 고려와 원의 긴밀한 관계를 잘 알려준다. 거용관의 사천왕상 역시 기왕의 중국 천왕전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이와 같은 '門의 사천왕상' 관념은 결국 13세기 후반 고려 후기에 천왕문이 등장하는데 적잖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13세기 이전 사찰의 문에는 어떤 존상이 봉안되어 있었을까? 흥미롭게도 '1337년 통도사 천왕문' 이전에는 어떤 문헌 기록에서도 '천왕문'이라는 전각명칭은 찾을 수 없다. '門' 관련 기록이 적지 않은데도 말이다. 예컨대 1123년 『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靖國 安和寺, 廣通 普濟寺의 문에 대해 여러 차례 적고 있는데, 해당부분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山門閣』을 지나 시냇물을 끼고 몇 리를 가 安和門으로 들어가고, 다음에 정국 안화사로 들어간다. 절의 액자는 곧 지금의 太師 蔡京의 글씨이다. … 또 좀 북쪽으로 가면 紫翠門으로 들어가고, 다음에는 神護門으로 들어간다. 문 동쪽 율랑에 像이 있는데 그것은 帝釋이다.⁴⁵⁾

43) 『灤京紀行』, 居庸關(이곡 저, 이상현 번역, 『(국역)가정집』 2, 민족문화추진회 [편], 민족추진위원회, 2006, p. 175); 이곡의 아들은 고려말 대표 문인인 목은 이색이다.

44) 어강석, 「고려 후기 문인의 원 문화 수용과 의식 변화」, 『開新語文研究』 20, 2003, pp. 341-370; 어강석, 「稼亭 李穀의 在元期 詩에 나타난 交遊樣相과 精神的 葛藤」, 『韓國漢文學研究』 45, 2010, pp. 303-329.

45) 民族文化推進會, 國譯『宣和奉使高麗圖經』 第17 祠宇 靖國安和寺, 1977, p. 109.

‘광통보제사는 왕부의 남쪽 泰安門 안에서 곧장 북쪽으로 백여 보의 지점에 있다. 절의 액자는 ‘官道’에 남향으로 걸려 있고, 中門의 방은 ‘神通之門’이다.’⁴⁶⁾

위의 기술 가운데 神護門, 神通之門의 명칭을 두고 1123년 이미 천왕문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⁴⁷⁾ 그러나 신호문, 신통지문이 내부에 사천왕상을 봉안한 문을 지칭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앞서도 언급했지만, 통도사의 경우도 ‘천왕문’이라고 전각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이후 金守溫(1410-1481)이 지은 『拭疣集』에도 奉先寺 ‘天王門一間’이라고 분명히 적었다.⁴⁸⁾ 문 내부에 사천왕상을 봉안하고도 천왕문이 아닌 신호문 등의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국안화사의 신호문은 산문을 지나 몇 개의 문을 더 지나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 입구의 천왕문과는 위치가 다르다. 이로 미루어 보면 적어도 12세기까지는 사찰 입구에 ‘천왕문’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천왕문은 13세기 후반 무렵 고려와 원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사찰 입구에 천왕문을 건립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결국 천왕문이라는 단독의 전각에 사천왕상을 봉안하고, 사역 전체를 수호하도록 하여 사천왕상이 수호해야 할 물리적 공간이 보다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IV. 조선시대 천왕문의 정착

조선은 개국 직후인 1395년에 사천왕사에 사신을 보내 사천왕 도량을 베풀었다.⁴⁹⁾ 물론 이후 공식적인 사천왕 도량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수의 사천왕상은 조선 후기에 남아있다. 물론 현존하는 한국 불상 전체 비율로 따진다면 조선 후기에 사천왕상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조선 후기의 사천왕상은 예외 없이 사천왕상을 단독의 전각인 ‘천왕문’에 봉안하여 넓은 사역을 지키도록 했다. 물론 1750년 무렵을 경계로 그 이후에는 ‘사천왕상’을 조각이 아니라 그림으로 대신했다.⁵⁰⁾

46) 民族文化推進會, 위 글, p. 111.

47) 심효섭, 앞 글, pp. 91-92.

48) 金守溫(1410-1481) 奉先寺記 『拭疣集』 卷之二 ‘天王門一間’; 朴允默(1771-1849), 『存齋集』 卷之十四 楡店寺 ‘門屹天王廻不羣 寺有水月堂天王門’.

49) 『태조실록』 7권, 태조4년 6월 1일.

50) 18세기 중엽 이후 사천왕상이 사천왕도로 바뀌는 경향에 대해서는 심영신, 「조선 후기 四天王圖의 제작과 봉안 양상」, 『동아시아불교문화』 28, 2016, pp. 49-82 참조.

현존하는 천왕문 내의 사천왕상 가운데 가장 이른 예는 1515년 높이 3.73미터의 보림사 천왕문의 사천왕상이다(도11).⁵¹⁾ 보림사 사천왕상이 남아있지만, 통상 천왕문 안에 대형 사천왕상의 본격적인 유행은 조선 후기 벽암 각성과 관련있다고 봤다. 의승군이 주둔하던 사찰에 '천왕문과 사천왕상'을 의도적으로 세워 사천왕의 기본개념인 호국 정신을 실천하려 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⁵²⁾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지만 필자는 이미 13세기 후반 무렵부터 천왕문을 건립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본다. 1337년 통도사 천왕문 건립 기록, 金守溫(1410-1481)의 '天王門' 언급, 1515년 보림사 사천왕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물로 남아있는 1515년 보림사 사천왕상은 그 뒤로 이어지는 1628년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과도 도상이 일치한다. 이는 조선 후기에 성행했던 사천왕상 도상이 보림사 사천왕상을 전범으로 삼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⁵³⁾ 이처럼 벽암 각성의 등장 이전에 이미 '천왕문과 대형 사천왕상'이



도 11.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 북방 다문천, 1515년 (©『문화재대관』보물-불교조각 I, 2016, p.419)

51) 1780년 6월에 쓰인 『寶林寺天王金剛重新功德記』 편역에 의하면, 이 사천왕상은 1515년 화주비구 戒文이 처음 조성했고, 1779년에는 象允이 화주로서 중수하여 1780년 6월에 점안했다고 한다. 중수는 稱淑, 戒心 등 당시 전라도 일대에서 크게 활약했던 조각승이 담당했다. 한편 보림사 사천왕상의 제작시기는 한 때 1539년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는 위의 공덕기에서 '皇明正德乙亥有山人戒之始爲立像'의 乙亥가 己亥로 오독되었기 때문이다(고경 감수, 김희태·최인산·양기수 역주, 『역주 보림사 중창기』, 장흥문화원, 2001, p. 96; 순천대학교박물관, 『迦智山寶林寺』 지방문화자료총서 5, 1995, p.108); 보림사 사천왕문은 1981년 10월 20일 시도유형문화재 제85호에 지정되었다가 이후 지정 해제되었으며, 사천왕상은 현재 보물 제1254호로 지정되어 있다.

52) 사천왕상이 임진왜란 이후 호국신앙의 분위기와 직결된다고 여긴 연구 성과는 이 글의 각주 4 참조.

53) 조선 전기에 사천왕상 지물이 바뀐다. 이에 대해 필자는 조선 전기에 대량 유입된 『제불보살명칭가곡』(1417)의 영향이라고 판단했다(임영애, 「조선시대 사천왕상 존명의 변화」, 『미술사학연구』 265, 2010, pp. 73-104; Lim Young-ae, "The Four Heavenly Kings of Jikjisa Temple Dated to 1665 of the Joseon Period and Their Significances", Korea Journal 57-2, 2017, pp. 142-143). 최근 조선 전기에 『제불보살명칭가곡』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판본, 즉 『묘법연화경』 변상도 등 다양한 도상의 혼용이 있었다고 본 견해도 있다(김경미, 「조선 전기 석가설법도의 사천왕 도상 배치형식 고찰」, 『문화재』 48, 2015, pp. 4-23). 조선 전기에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필자가 이전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조선 전기에 새로운 도상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가장 주요하게 사용된 판본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 대형 사천왕상의 유행을 벽암 각성의 공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편,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1609년 가을 금강산 정양사에 올랐던 曹友仁(1561-1625)은 장안사 천왕문의 사천왕상에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장안사 스님이 사천왕소상을 말하다.’

장안사의 문이 물가에 있는데, 사천왕소상이 좌우로 벌여있네. 단청된 은 몸 모양이 몹시 사나와, 부릅뜬 눈 가슴으로 우뚝하니 서로 보네. 하나는 입으로 뱀처럼 구불구불한 것을 토하고, 하나는 발로 사람의 등과 어깨를 밟았네. 그 나머지 둘도 각각 특이한 형상으로, 칼을 잡고 있거나 창을 잡고 있네. 鬼物 같기도 하고 괴이하기도 한데, 슬쩍 보니 신처럼 두렵기도 하네. 절의 중에게 그런 까닭을 물으니, 오묘한 이치는 아득하다고 답하네. 諸天의 기미가 된 것은 이렇게 성하여, 특히 聖尊이 와서 옹호한다고 하네. 그 말이 허탄하고 증거가 없어, 듣고 있자니 끝나기도 전에 도리어 미움이 생기네. 어찌하면 천군의 죄여의봉을 얻어, 이런 물건을 쳐부수어 땅에 넘어뜨려서, 너희들의 황당한 논설을 파헤쳐 끊어, 푸른 하늘에서 밝은 태양을 보는 것 같이 할까?⁵⁴⁾

위의 시를 통해 1609년 이미 장안사 천왕문에는 사천왕상이 있었고, 그 모습 역시 이후의 사천왕상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장안사 천왕문은 벽암 각성과는 무관하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14세기 중엽 무렵 고려 승려 굉변이 기황후의 후원을 받아 중수한 사찰이다. 물론 14세기 중엽 중수 당시의 모습이 1609년까지 잘 유지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벽암 각성이 1609년부터 부휴 선수와 함께 중창을 시작했으니, 그의 활약 이전에도 이미 금강산 장안사에 천왕문이 건립되어 있었음을 분명히 알려준다.

벽암 각성이 스승과 함께 중수에 참여하거나 직접 중창에 관여한 사찰은 10여 곳이다. 관여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에 따라 사찰의 숫자는 달라지지만, 그가 중창을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거나, 그의 탑이나 탑비가 건립된 사찰은 바로 구례 화엄사, 순천 송광사, 완주 송광사, 보은 법주사 이렇게 네 곳이다.⁵⁵⁾ 흥미롭게도 벽암 각성이 중창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이들 사찰에는 현재 대형 사천왕상이 남아있다. 이런 이유로 ‘천왕문과 대형 사천왕상’ 건립을 벽암 각성과 관련 있으며, 벽암 각성으로 인해 ‘호국’과 관련한 사천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본 것이다.⁵⁶⁾ 이들 네 사찰의 사천왕상과 벽암 각성과의 관계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4) 『頤齋集』 卷之一 ‘長安寺沙門 四天王塑像’, 편찬연대 미상; 조우인의 시를 번역해 준 진복규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55) 이지관 편, 「법주사벽암당각성대사비명」, 『한국고승비문총집』,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0, pp. 174-177.

56) 노명신, 앞 글, 1999, pp. 89-90.



도 12.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 1628년 (©임영애)



도 14. 구례 화엄사 사천왕상, 북방 다문천 (©임영애)



도 13. 구례 화엄사 천왕문 (©임영애)

우선 벽암 각성이 처음으로 중수에 참여한 사찰은 순천 송광사의 몇몇 전각과 천왕문이였다(도12). 그 때가 1609년이다.⁵⁷⁾ 순천 송광사의 요청에 따라 부휴 선수(1543-1615)가

57) 綺山 撰, 「松廣寺沿革」 『曹溪山松廣寺史庫』 韓國寺誌叢書, 아세아문화사, 1983, pp. 64-65.



도 15. 보림사 사천왕상(왼쪽)과 화엄사 사천왕상(오른쪽), 동방 지국천 (©『문화재대관』
보물-불교조각 I, 2016, p.420 & ©임영애)

벽암 각성 등 400여명을 거느리고 사찰 중창을 이뤄냈다.⁵⁸⁾ 물론 순천 송광사 천왕문은 당시 나이 34세였던 벽암 각성이 관여하기는 했지만, 주관자는 그가 아니라 부휴선수였다. 천왕문 안의 사천왕상은 햇수로 20년이 지난 1628년이 되어야 완성했다.

이어서 구례 화엄사의 중창은 1630-1636년 무렵 벽암 각성이 주도했고 그의 문도들이 완공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있는 문헌 자료로는 이 시기 일주문, 천왕문, 금강문도 함께 재건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⁵⁹⁾ 설령 당시 천왕문과 사천왕상을 함께 재건했고, 벽암 각성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화엄사 사천왕상은 인근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을 전범으로 삼았다(도13,14,15). 1515년 보림사 사천왕상과 동일한 도상, 크기, 양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법주사 사천왕상과 완주 송광사 사천왕상(1649) 역시 벽암 각성과 연관 관계를 찾기는 어렵다.⁶⁰⁾ 법주사 팔상전의 재건공사(1605, 1626)나 대웅대광명전 재건공사(1618)에는 벽암 각성이 참여한 적이 없고, 1626년 불상 조성에만 그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이다.⁶¹⁾ 1626년 벽암 각성이 법주사에 머물렀음은 틀림없지만, 현재 밝혀진 그의 역할은 불상 조성의 寺內秩이다. 그런 그가 법주사 천왕문을 건립하고, 사천왕상을 조성하

58) 위의 각주와 林錫珍, 『조계산 송광사지』, 송광사, 1965, p. 168.

59) 이강근, 「화엄사의 불전과 17세기 재건역」, 『불교미술』 14, 1997, p. 89.

60) 이강근, 「17세기 법주사의 재건과 양대 문중의 활동에 관한 연구」, 『강좌미술사』 26-1, 2006, p. 463.

61) 이강근, 앞 글, 2006, p. 463.



도 16. 완주 송광사 사천왕상, 동방지국전, 1649년 (『문화재대관』 보물-불교조각Ⅱ, 2017, p.68)

는데 얼마나 관여했을지는 의문이다.⁶²⁾

이는 완주 송광사도 마찬가지이다. 1636년에 쓰인 개창비문에 의하면 1차 창건 공사는 1622년부터 1631년 사이 10년간 진행되었으며, 이 때 2층의 대웅전을 비롯하여 명부전, 천왕전, 정문 등의 건물을 건립했다. 당시 천왕전 건립은 뽀이 말아했기 때문에 벽암 각성과는 역시 관련이 없다.⁶³⁾ 아울러 이 천왕전에 사천왕상을 조성 봉안한 것은 10여년 후인 1649년의 일인데,⁶⁴⁾ 벽암 각성은 1642년 해인사로 거처를 옮긴 이후 입적할 때까지 완주 송광사에 머무른 흔적이 없다(도16).⁶⁵⁾

한편 사천왕상의 크기가 커진 것을 두고도 ‘호국’과 관련 짓기도 하지만, 이 역시 이미 입진왜란 이전부터 대형 장육상 조성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 사천왕상만의 특징이라고 보기 어렵다. 잘 알려진 것처럼 1227년 王輪寺의 장육비로자나삼존상, 1338년 佛恩寺의 장육약사삼존, 묘향산 보현사의 장육비로자나불좌상이 있다.⁶⁶⁾ 조선 전기에도 임란 이전의 기림사 대적광전 소조삼신불좌상도 있고, 앞서 여러 번 언급한 1515년 373센티미터 크기의 보림사 사천왕상도 있다. 이처럼 대형 소조상의 전통은 이미 이전 시기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 크기도 범주사 사천왕상만 570센티미터로 특별히 크고, 나머지 사천왕상은 대체로 370-420센티미터로 비슷하다.

그리고 보면, 벽암 각성이 중창에 깊이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의 탑 혹은 탑비가 남아있는 네 곳의 사찰의 사천왕상 가운데, 벽암 각성과 관련 있는 예를 굳이 꼽으려면 순천 송광사와 구례 화엄사 사천왕상 정도이다. 하지만 이들조차 순천 송광사 천왕문은 부휴 선수가 주도했으며, 구례 화엄사 천왕문은 벽암 각성이 관여했을 가능성

62) 범주사 천왕문과 사천왕상은 1624년 건립으로 알려져 있지만(노명신, 앞 글, 1994, p. 101의 표 참조), 이는 범주사를 중창한 시기이며, 이 때 범주사의 천왕문과 사천왕상을 조성했는지는 알 수 없다. 1624년은 벽암 각성이 팔도도총섭으로 남한산성 축조하던 때여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63) 『松廣寺開創碑』 碑陰記에 의하면 1622-1631년 사이에 천왕전을 건립했는데, 천왕전은 뽀이 조성했다(『朝鮮金石總覽(下)』, pp. 871-872).

64) 북방천왕 관대에 쓰인 명문에 의해 1649년 사천왕상 조성되었음이 알려졌다(노명신, 앞 글, 1999, pp. 95-96).

65) 최연식, 「완주 송광사의 창건 배경 및 조선후기 불교 문과와의 관계」, 『보조사상』 47, 2017, p. 156.

66) 『高麗史』 世家 卷二十八 忠烈王三年; 「王輪寺丈六金像靈驗收拾記」, 『東文選』 67; 「高麗國天台佛恩寺重興記」, 『東文選』 70; 「丈六毘盧舍那塑像讚并序」, 『東文選』 50.

은 높지만 입증할 문헌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아울러 벽암 각성 중창 이전에도 천왕문과 대형 사천왕상 조성의 흔적이 곳곳에 나타나는 이상, 조선 후기 대형 사천왕상을 '벽암 각성의 호국정신 발현'과 연결시키는 일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물론 17세기 재건 사찰에 일률적으로 천왕문과 대형 사천왕상을 조성한 것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⁶⁷⁾ 다만 이 시기에 '벽암 각성과 호국'이라는 특별한 이유로 천왕문과 대형 사천왕상의 조성을 강조하는 것은 조선 후기 사천왕상을 정밀하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사찰의 천왕문은 이미 13세기 후반부터 건립하기 시작했으나 전란으로 소실되었고, 이 후 17세기에 동일한 형식으로 재건했다. 다만 전란 후 '천왕문과 대형 사천왕상'이 특별히 유행했던 것처럼 보인 이유는 재건한 천왕문이 잘 유지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⁶⁸⁾

V. 맺음말

신라에 사천왕상이 처음 등장할 당시에는 682년 감은사나 8세기 전반 나원리사지의 사리기처럼 탑신 내부라는 닫힌 공간 안에 사천왕상이 있었다. 8세기 중엽이후부터는 탑신 표면으로 몸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으로 사천왕상이 유행하게 된다. 그 시작이 원원사 동서 삼층석탑 탑신의 사천왕상이며, 고려 전기까지 수많은 불탑과 승탑 탑신에 새겨진다.⁶⁹⁾ 물론 통일기 신라시기 사천왕상이 탑에만 위치했던 것은 아니다. 고대 동아시아의 예로 비추어 보면 불전 내부에도 사천왕상을 봉안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쉽게도 남아있는 예는 없다. 고려시대에도 『금광명경』 도량이 40여 차례 이상 열렸고, 이때 사천왕상은 필수였기 때문에 불전 안에는 여전히 사천왕상을 모셨을 것이다.

탑과 불전에 위치해 있던 사천왕상은 13세기 후반 무렵 사찰 입구에 마련된 천왕문에 봉안되기 시작했고, 사천왕이 수호해야할 공간은 사찰 전체로 확장된다. 문헌 기록으로는 '1337년 통도사 천왕문 건립'이 가장 이른 예이지만, 정황상 1270년 入元구법승이 갑자기 늘어나는 13세기 후반 즈음부터는 이미 중국 사찰의 천왕전이 고려 사찰 영역에 도입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대형 사천왕상과 천왕문의 예만을 두고 '천왕문이 조선시대 후기에 시작했고, 그 원인이 전란 이후 벽암 각성의 호국의 발현 때문'이라고 본 기왕의 견해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67) 허형욱, 「화엄사의 불교조각」, 『화엄사의 불교미술』 불교미술연구 조사보고 제2집, 2010, pp. 75-77.

68) 17세기 초반 천왕문은 건물 규모가 커지고 내부 기둥은 생략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17세기 중반을 지나 후반이 되면 다시 작아지는 추세가 되고 단순한 형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류성룡, 앞 글, p. 81.

69) 임영애, 앞 글, 2011b, pp. 23-48.

보았다.

사천왕상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사천왕상의 봉안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사 밖에 놓여있었다. 특히 천왕문과 관련해서는 남아있는 천왕문이 창건 당시의 것이 아니며, 관련 사료도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지금까지 사천왕상의 방위 문제에 주력하느라 연구자들의 흥미를 별로 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사천왕상의 봉안 위치에 따른 역할 변화를 큰 흐름 속에서 살펴본 것이다. 통일기 신라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천왕상 봉안 위치의 큰 변화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각 시기 사천왕상의 면밀한 검토는 불가피하게 소홀했음을 밝힌다. 이 글을 마치며 필자는 이러한 흐름을 단선적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다만 큰 틀에서 바라보았을 때 한국 사천왕상의 봉안 위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쳤으며, 그에 따라 그 역할도 호국과 함께 사역 전체를 수호하는 의미로 확대되었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논문투고일 : 8월 03일, 논문심사완료일 : 8월 20일, 논문게재확정일 : 8월 22일

[참고문헌]

1. 사료 및 자료

- 「高麗國天台佛恩寺重興記」, 『東文選』 70.
- 「金剛山長安寺重興碑」(李穀), 『東文選』 118.
- 「內殿行金經說經疏」(金坵撰), 『東文選』 110.
- 「松廣寺開創碑」, 『朝鮮金石總覽(下)』, pp. 871-872.
- 「王輪寺丈六金像靈驗收拾記」, 『東文選』 67.
- 「丈六毘盧舍那塑像讚并序」, 『東文選』 50.
- 『고려사』 세가 제2,3,9,12,22,28.
- 『삼국사기』 신라본기 第八 聖德王 三年 春正月.
- 『燕轅直指』 卷之四, 燕行錄選集.
- 『頤齋集』 卷之一.
- 『태조실록』 7권, 태조4년 6월 1일.
- 『通度寺略誌』 통도사, 1969, p. 11.
- 金守溫(1410-1481) 『拭疣集』.
- 林錫珍, 『조계산 송광사지』, 송광사, 1965, p. 168.
- 朴允默(1771-1849), 『存齋集』.
-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通度寺誌』 韓國寺志叢書 5, 亞細亞文化社, 1979, p. 188.
- T16n0663 『金光明經』.
- T16n0664 『合部金光明經』.
- T16n0665 『金光明最勝王經』.
- T2034, 9:0082b, 『歷代三寶紀』
- T2092 1:999c 『洛陽伽藍記』.
- T46n1945.0959a06 『金光明懺法補助儀』.
- T49n2039.1011b08 『三國遺事』 卷5 明朗神印.
- T49n239.1009c25 『三國遺事』 義解第五 賢瑜伽海華嚴.
- T51n2093 唐 段成式撰 『寺塔記』.

2. 단행본 및 저서

- 고경 감수, 김희태·최인선·양기수 역주, 『역주 보림사 중창기』, 장흥문화원, 2001, p. 96.
- 金岡秀友 지음 김희오 옮김, 『불교의 국가관』, 總和閣, 1978, pp. 118-119.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황룡사』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 1984, pp. 93-95.
-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남도 III』 자료집, 2010, p. 35.
- 민족문화추진회, 國譯 『宣和奉使高麗圖經』 第17 祠宇 靖國安和寺, 1977, p. 109.
- 순천대학교박물관, 『迦智山寶林寺』 지방문화자료총서 5, 1995, p. 108.
- 이곡 저, 이상현 번역, 『(국역)가정집』 2, 민족문화추진회 [편], 민족추진위원회, 2006, p. 175.
- 이지관 편, 「법주사벽암당각성대사비명」, 『한국고승비문총집』,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0, pp. 174-177.
- 정병삼, 「황복사 금동사리함기」, 『(역주)한국고대금석문』, 한국고대사회연구소, 1992, pp. 346-350.
- 中村元 지음 차차석 옮김, 『불교정치사회학』, 불교시대사, 1993, pp. 204-208.
- 郭黛姮 主編, 『中國古代建築史』 3, 宋遼金西夏 建築, 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3, p. 296.
- 關野貞, 『支那の建築と藝術』, 東京: 岩波書店, 1938, pp. 293-312.
- 綺山 撰, 「松廣寺沿革」 『曹溪山松廣寺史庫』 韓國寺誌叢書, 아세아문화사, 1983, pp. 64-65.
- 藤田經世, 「法隆寺本古今目錄抄」, 『校刊美術史料』 寺院篇 中卷, 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1976, p. 39.
- 村田治郎, 『中國建築史叢考』, 中央公論美術出版社, 1998, p. 54.

3. 논문류

- 강삼혜, 「나말여초 僧塔 塔身 神將像 연구」, 『미술사학연구』 252, 2006, pp. 81-116.
- 김경미, 「조선 전기 석가설법도의 사천왕 도상 배치형식 고찰」, 『문화재』 48, 2015, pp. 4-23.
- 김길웅, 「석장사지 출토 소조신장상의 고찰」, 『문화사학』 25, 2006, pp. 99-109.
- 김병곤, 「元の 宗教觀과 高麗 入元僧의 行蹟」, 『불교연구』 27, 2007, pp. 236-240.
- 김상현, 「고려시대의 호국불교 연구-金光明經 信仰을 中心으로」, 『단국대학교대학원 학술논총』 1, 1976, p. 203.
- 김지현, 「통일신라 佛塔의 四天王像과 그 의미」, 『文物研究』 17, 2010, pp. 83-112.
- 김철웅, 「高麗와 中國 元·明 교류의 통로」, 『東洋學』 53, 2013, pp. 65-82.
- 노명신, 「송광사 사천왕상에 대한 고찰」, 『강좌 미술사』 13, 1999, p. 95.

- 노명신, 「조선후기 사천왕상에 대한 고찰」, 『미술사학연구』 202, 1994, p. 105.
- 류성룡, 「17세기 사천왕상 天王門의 건축형식 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1-5, 2012, pp. 69-82.
- 문명대, 「신라사천왕상의 연구 -한국탑부조상의 연구(2)-」, 『불교미술』 5, 동국대박물관, 1980(『통일신라불교조각사 연구(下)』, 예경, 2003, pp. 232-278 재수록).
- 심영신, 「조선후기 四天王圖의 제작과 봉안 양상」, 『동아시아불교문화』 28, 2016, pp. 49-82.
- 심효섭, 「한국 고대 불교사원내 사천왕문의 형성考」, 『역사와 교육-蓮史洪潤植博士停年紀念特輯號-』 9, 2000, pp. 83-84.
- 어강석, 「稼亭 李穀의 在元期 詩에 나타난 交遊樣相과 精神的 葛藤」, 『韓國漢文學研究』 45, 2010, pp. 303-329.
- 어강석, 「고려 후기 문인의 원 문화 수용과 의식 변화」, 『開新語文研究』 20, 2003, pp. 341-370.
- 윤여창, 「통일신라 탑부조 신장상 연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1, pp. 61-104.
- 이강근, 「17세기 법주사의 재건과 양대 문중의 활동에 관한 연구」, 『강좌미술사』 26-1, 2006, p. 463.
- 이강근, 「完州 松廣寺의 建築과 17세기의 開創役」, 『강좌미술사』 13, 1999, p. 109.
- 이강근, 「화엄사의 불전과 17세기 재건역」, 『불교미술』 14, 1997, p. 89.
- 이대암, 「조선시대 라마계 천왕문의 수용 및 전개에 대하여」, 『건축역사연구』 16-6, 2007, p. 47.
- 임영애, 「북방 多聞天和 그의 持物 寶塔-원과 고려이전 양상-」, 『미술사와 시각문화』 9, 2010, pp. 86-115
- 임영애, 「사천왕사지 塑造像의 존명」, 『미술사논단』 27, 2008, pp. 7-32.
- 임영애, 「사천왕상과 호국신앙」, 『신라의 조각과 회화』 신라사대계 19, 경상북도, 2016, p. 52.
- 임영애, 「석굴암 사천왕상의 도상과 불교경전」, 『강좌미술사』 37, 2011a, pp. 44-45.
- 임영애, 「신라석탑 탑신 부조상의 추이-금강역사상에서 사천왕상으로-」, 『선사와 고대』 35, 2011b, pp. 225-248.
- 임영애, 「조선시대 사천왕상 존명의 변화」, 『미술사학연구』 265, 2010, pp. 73-104.
- 임영애, 「황룡사 중금당 佛眷屬 16존상의 복원 : 불제자상, 금강역사상과 獅子像 그리고 공양자상」, 『신라사학보』 23, 2011, pp. 299-339.
- 장충식, 「통일신라석탑 부조상의 연구」, 『고고미술』 154-155, 1982, pp. 96-116.
- 정요근, 「고려 역로망 운영에 대한 元의 개입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 64, 2007, p. 167.

- 정은우, 「조선후기 대형 소조사천왕상의 구조와 제작기법 연구」, 『불교미술사학』 22, 2016, p. 153.
- 최연식, 「완주 송광사의 창건 배경 및 조선후기 불교 문파와의 관계」, 『보조사상』 47, 2017, p. 156.
- 한재원, 「한국 고대 신중상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8, p. 81.
- 허형욱, 「통일신라 석탑 부조상의 종류와 구성」, 『영원한 생명의 울림 - 통일신라 조각』, 국립중앙박물관, 2008, pp. 320-329.
- 허형욱, 「화엄사의 불교조각」, 『화엄사의 불교미술』 불교미술연구 조사보고 제2집, 2010, pp. 75-77.
- Lim Young-ae, "Images of the Four Heavenly Kings in Unified Silla as the Symbol of National Defense", *Buddhist Studies Review* 32-2, *Journal of the UK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2015, pp. 271-293.
- Lim Young-ae, "The Four Heavenly Kings of Jikjisa Temple Dated to 1665 of the Joseon Period and Their Significances", *Korea Journal* 57-2, 2017, pp. 142-143.